

祝詩

『제임스조이스저널』 발간 30주년을 기념하며

김 철 수 (시인, 조선대 교수)

서른여덟 해 전

애란(愛蘭)의 수도 더블린을 지나며 흐르던
리피라는 강물에 세례 받고 돌아온 한 선교사가
한 가득 안고 돌아온 보따리 속의 수수께끼가
온 땅에 복음 되어 퍼지기 시작하였네.

팔백 년 식민지

설움과 분노로 점철된 오욕의 역사가
저주의 장승처럼 뿌리 되어 박힌
친애하는 더러운 더블린에

펜과 잉크를 바늘과 실 삼아
한 땀 한 땀 수고와 정성을 담아
조국의 도덕사를 수놓으려 했던
한 글쟁이가 있었다는데,

젯빛 도시의 하늘로 양피지를 삼고
영원히 흐르는 리피의 강물로
마르지 않을 잉크를 삼아
뢰비우스의 띠처럼 순환하는 역사와
그 위에서 생로병사 하는 인생사를 그려
감히 측량 못할 세계를 창조하였다네.

생중사의 미로를 혈기로 박차고
오르다 추락한 이카로스와
아들의 분노를 증용의 미소로
애써 다독이던 다이달로스의 처연한 사연이
트로이의 영웅 오디세우스와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
그리고 그의 아내 페넬로페의 거룩한 곡조를 타고
더블린에서 한 판 거방지게 연주되는 동안

그 모든 것 초월한 피네간의 박장대소와
불사조 같은 그의 부활의 소문도
리피 강을 따라 흐르고 흘러
이 땅의 강이란 강은 모조리 타고 흘러
마침내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이르렀네.

백 년의 수수께끼에 호기심이 동한
동방 나라의 백면서생(白面書生)들이
의식의 주머니 속에서 꿈틀거리던 글자로
광산의 심연을 뒤져 에메랄드를 캐듯,
강바닥 모래를 뒤적여 사금을 캐듯,
그 복음 해석한 지 이제 삼십 년.

켜켜이 쌓인 정금과 보석들이
작품 속 온 누리의 언어를 하나로 엮어 줄
반짝이며 빛나는 바벨탑이 되어
만인의 눈앞에 우뚝 설 그날까지 그리고
다시 무너질 그 순간까지 그리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의 걸음은 쉬지 않으리라!

제임스조이스저널리여 영원하라!